



TV토론 프로그램의 새로운 반향, MBC <100분 토론>

김주희

1. 다양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현대 사회

100인 100생각.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좁게는 개인-개인 간의 갈등, 국가-국민 간의 갈등, 나아가 국가-국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무엇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TV는 사회적 공통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금까지 TV는 오락, 휴식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제4의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방송은 이전의 의미를 넘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또 하나의 대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TV의 이런 발전은 국민을 TV 앞으로 모이게 했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한 줄기 불빛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MBC의 <100분 토론>이다.

2. 따분하고 지겨운 TV토론, 이젠 No!

앞서 말했듯이 예전에 TV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재미 위주의 오락거리였다. 때문에 언제든지 채널 어딘가를 채우고 있는 TV토론 프로그램이 소외를 받았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또다시 복잡한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두뇌운동을 누가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100분 토론>은 TV토론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전환시켰다.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이슈가 떠올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100분 토론>을 챙겨본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TV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그중 <100분 토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성 때문이다. <100분 토론>은 이전에 가졌던 TV 토론에 대한 편견과 이미지를 깨뜨린다.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네티즌으로서 패널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시민 논객으로서 직접 방송에 참여해 패널들과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 통화로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소통로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100분 토론>은 토론이 갖는 형식적이고 딱딱한 특징에서 탈피한 개혁적인 프로그램이라 감히 말하겠다.

3.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

<100분 토론>이 갖는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다양한 의견 존중’이다. 토론은 주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양 패널들이 한다. 어떤 TV 토론 프로그램은 토론을 중계하는 형식을 띠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일방적으로 두 의견을 비판의 과정 없이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100분 토론>은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 스튜디오 밖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토론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형식은 ‘과감하고 진솔한 토론장’을 마련하겠다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한다.

지난 달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방송된 여러 개의 방송에서 시민 논객으로 직장인, 학원 강사, 대학생 등이 참여했고, 전화 참여자로는 미국에 사는 교포가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다원성인데 이러한 방송 형태는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고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이처럼 <100분 토론>이 갖는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더 이상 떠먹는 식의 수용이 아닌 선별하고 따져보며 먹는 똑똑한 미디어 소비자로 거듭나게 만든다. 게다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한 목소리로 내는 능동적인 자세를 길러준다. 직접 패널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다양한 통로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내게 된 것이다.

4.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려면

<100분 토론>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그만큼 보완해야 할 점도 속속 드러난다. 첫째, 토론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탁상 토론하는 것은 다른 좋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해도 그야말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다양한 참여로 공들인 토론인 만큼 토론 후에 사회적 변화나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수정된 정책이 나온다는 등 눈에 띄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정한 토론의 결과와 더

큰 보람을 제작진, 시청자 모두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시민 논객 선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에 참여하는 시민 논객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적 책임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대표하거나 특정 계층이 아닌 쟁점을 공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논객으로 선정해야 한다. 셋째, 주제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100분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	사회	문화/예술	경제	미디어	합계
28	5	2	5	1	41

(2007.5~2008.5 기준)

게다가 비슷한 주제로 몇 주간 지속되는 것을 보아 주제 부족으로 보인다.

같은 주제	종교인 과세논란 (2007.7.12)
	종교인 과세논란 (2008.1.31)
비슷한 주제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 (2007.9.6)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 (2007.9.27)
	기로에 선 통합신당 경선 (2007.9.20)

사회 다양한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골고루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분야의 내용을 줄이라는 말은 아니다.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듯이 정치 분야의 주제 쏠림 현상은 다른 가능성 있는 주제들에 비해 너무 높다. 이 조사 기간이 대선과 총선이 맞물려 있는 기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뉴스나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토론 프로그램의 의미를 살리려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국경을 넘은 국제사회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를 좀 더 보완·수정한다면 질 높고 성숙한 <100분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한다.

5. 바람 그리고 전망

학생의 입장에서 <100분 토론>을 시청하면서 현재 방송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예전에 EBS에서 <청소년 원탁 토론>이란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주제를 정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참신함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했다. 그런데 어느새 편성표에서 사라졌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토론 프로그램이 사라졌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바라는 점은 MBC <100분 토론>의 축소판인 <청소년 100분 토론> 방송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EBS만 만들라는 법은 없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 시청자와 사회인으로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IPTV 시대 청소년 계층을 위한 토론 프로그램을 MBC가 적극 나서서 기획, 제작한다면 또 다른 미디어 흐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며 토론은 이제 지위와 나이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치관을 확립할 청소년기에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토론에 대한 적응력도 기르고 나아가 장래의 국제 외교·통상 예비 전문가를 기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100분 토론>이 몇 세대를 거쳐도 계속 사랑받는 응골찬 토론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한다.